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사랑의 방식 I

『愛の作法』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日 科

宋 和 貞

2012年 2月

사랑의 방식 I

『愛の作法』翻譯論文

指導教授 李禮安

宋和貞

이 論文을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2月

宋和貞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委 員_____ (印)

委 員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2年 2月

역자서문

「사랑의 방식」은 아사히신문사의 유명 시사잡지 『아에라(AERA)』에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재된 칼럼 중 일부를 엮은 에세이집으로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교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재일교포들의 고단했던 생활에서부터 70,80년대의 화려했던 도쿄의 모습, 일본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사건, 그리고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를 아우르며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등 사회전반에 대한 저자의 이해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자 나름대로 기록해 놓았다. 또한 자신의 고민들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데 이를 보면 70년대 일어난 재일교포들의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사이타마현 거부대상1호였던 저자가 반대운동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수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이 책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며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추구하는 정신작용이라고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듯이 이 책에서는 저자가 저자만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그중 1장 ‘3.11을 겪으며’, 2장 ‘이것이 나의 원점이다.’ 만을 역자는 번역하였고 역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달아놓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문초록

이 책은 아사히신문사의 『아에라(AERA)』에 연재된 칼럼 일부를 엮은 에세이 집으로 저자는 삶의 의미가 학문이나 과학기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전제로 이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개체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다.

저자는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나 정치 문제들도 결국 이 유대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며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유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1장 ‘3.11을 겪으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피해주민들과 점점 소극적이 되어가는 정부 지원에 대한 우려, 동일본 대지진후의 사회현상이나 국가 재건에 대해 그리고 있다. 제2장 ‘이것이 나의 원점이다.’에서는 제일교포 1세인 부모님의 고단했던 일본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첫사랑의 추억, 고향 구마모토에 대한 애정, 조국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많은 적든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민이 삶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힘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아사히신문사 발간 잡지 『아에라(AERA)』에 연재된 칼럼 「사랑의 방식」(2007년 8월 13일호~2011년 6월 6일호 중에서 발췌)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지위, 직위 등은 기본적으로 잡지 게재 당시에 따른 것입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3.11’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살아갈 양식과 터전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릅니다. 원전사고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방사능의 위협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껏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폐색감으로 전시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도쿄는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싫든 우리들은 변해 갈 테지요.

그 변화의 근본은 삶과 죽음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이 리얼리티를 가지고 빛납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 붐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할 반려자를 찾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보금자리의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1은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직시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책임만을 강조했던 살벌한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공감의 날개를 펴고 긍정적으로 상대와의 유대를 추구하는 정신작용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희망이 없어도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 희망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인색한 영락없는 중년남성이었습니다. 사랑 표현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혐오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다양한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주의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에는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서

로 계속 관계해야 할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됩니다. 사랑의 방식이란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책은 잡지 『아에라(AERA)』에 4년동안 연재한 칼럼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사회를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했던 것을 매주 글로 옮겼습니다만 이렇게 묶어서 읽으니 껍데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동시에 제가 오랜 동안 품어왔던 구상, 감정, 기억이 하나하나 선으로 이어져 그것이 한사람의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환갑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 이와 같은 집대성적인 칼럼집을 낼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막스 베버가 만년에 씨름한 문제는 '학문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가' 라는 톨스토이식의 문제제기였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삶의 의미'는 학문-과학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종교의 본질인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절망 속의 희망, '삶의 의미'를 절박한 상황에서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칼럼집이 여러분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때마다 기쁘게 맞아 주시고 이 책의 대담 취록도 흔쾌히 승낙해 주신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여름

강상중

목차

I. 3.11을 겪으며

‘국난國難’과 ‘민난民難’	5
마음에 와 닿는 말	7
동북지방 사람들의 소생력蘇生力을 믿는다.	9
계획정전으로 생각나는 역사의 아이러니	11
‘일본은 하나’에 대한 위화감	13
‘탈脫도쿄’가 끝나고 있다.	15
어둠 속에서야말로 인간의 본모습이 보인다.	17

II. 이것이, 나의 원점이다.

야구를 품에 안고	19
아버지- 평범한 삶의 위대함	21
구마모토熊本를 멀리 떠나	23
동경하던 소녀의 옛 모습	25
역도산力道山과 오야마 마스타쓰大山倍達의 미소	27
나의 ‘스탠드 바이 미’	28
미시마三島 사건의 충격	30
이질자와의 공존	32
‘아저씨’와 함께한 날들	35
락지성근落地成根	37
어머니의 마음의 위안	39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41
나와 도라씨의 접점	43
잊을 수 없는 독일의 성야聖夜	45
40년만에 재회한 친구	47
60세 생일, ‘첫사랑’ 여행을 떠나다.	49
2010년에 태어난 당신에게	51

I. 3.11을 겪으며

‘국난(國難)’과 ‘민난(民難)’

망연자실. 말문이 막혔습니다.

TV에 비춰진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단지 전율과 공포가 느껴질 뿐입니다. 칼날 같이 예리하고 거대한 파도가 집과 차를, 그리고 사람들을 시커먼 탁류 속으로 삼키는 광경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이, 얼마나 많은 행복이 얼마나 많은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地震¹⁾)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지진과 해일이 끝난 후의 참상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극적인 태도와 사회적인 구조에 의한 ‘인재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방심할 수 없는 원전사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문제로 마치 뒤로 밀려나버린 것처럼 소외되고 고립된 재해지역과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은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이후, 아니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전에 없던 대참사로 세계인들이 숨을 죽이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방사능오염 공포에 노출된 채 피난도 가지 못하고 구제와 지원의 손길에서 소외된 피해지역에 점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언론이 전할 수 없고, 전하려고 하지 않는 피해지역의 피해자들의 안부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들 주민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재해와 인재의 ‘최대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참사를 ‘국난’ 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확실히 일본의 대외적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전력부족과 에너지의

1)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兵庫県)의 고베시(神戸市)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다. 일본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6300여 명이 사망하고 1400억 달러의 피해를 냈다.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지역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 달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에 대한 지원을 미룬다면 ‘국난’이라는 발상은 정부 입장에서 본 도쿄중심 관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설정에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국난’인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이를 ‘민난’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힘을 모아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중한 주민들의 믿음을 잃고 어떻게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제적인 신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말하고 있는 ‘국책’의 전환은 ‘국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마을을 만들고 역사를 다져 온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구제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은 도쿄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피해지역의 입장에서 ‘민난’을 조금이라도 더 잠재우고 구체적인 구제와 원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4일호)

마음에 와 닿는 말

해외 언론들이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불평불만 없이 행동하는 일본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피소에서의 약탈과 탈법행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피해지역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언동이 담담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지진대국의 역사에서 배운 일본고유의 슬기로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담담이라 하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의 대응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당간사장으로서의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에다노씨였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사령탑으로써 연일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사태추이를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에다루’²⁾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쉴 새 없이 일하는 에다노 관방장관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에다노 관방장관의 설명에는 살아있는 말의 박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내 최고 논객으로 명성을 떨친 에다노 관방장관이 왜 관료들이 써 준 듯한 메모를 읽는 정부의 ‘홍보머신’으로 전략해 버렸는지, 국민을 대표하여 관료 기구를 통제하는 에다노 관방장관의 말은 피해지역과 정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듣고 있다 보면 지금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재기와 유언비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불필요한 혼란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가능한 한 중립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백성을 따라오도록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유를 알게 하기는 어렵다.”³⁾라는 옛 시대의 정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세워 온 정

2) 극한 상황에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3)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 공자 《논어》에 나오는 말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있어 법령에 의해 정부의 방침에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왜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이유까지 알려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의미. 그러므로 위정자는 정당한 이치를 내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함.

치주도^{主道}는 정치인이 갖는 번역기능을 풀가동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생활언어로 바꾸어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치였을 것입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도 빈틈없이,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혼란은 수습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정치인에게 있어서 대중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낀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씨가 관방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약간은 아슬아슬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을지도 모르지만 방사능유출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예를 들면서 모든 사람이 납득이 가도록 쉽게 바꿔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나 컴퓨터 그래픽 등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전달도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의 스케일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의 ‘엘리트’라면 단순히 기계적인 전문용어를 나열하는 것 이외의 표현수단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4월 11일)

4) 1918. 5~1993. 12 중의원 의원(16선)과 내각 총리대신(제64·65대)을 지낸 일본의 정치인. 중의원의원으로 있으면서 100개가 넘는 의원 입법에 참여했는데 그 중 자신이 주도하여 전면개정을 실현한 도로법이나 도로·항만·공항 등의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법 등은 일본의 사회 기반 정비에 큰 영향을 남겼다. 행정 공무원을 능가하는 방대한 지식과 실행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단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북지방 사람들의 소생력(蘇生力)을 믿는다.

구마모토(熊本) 출신인 저에게 동북지방은 가장 멀게 느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서일본 출신이라면 홋카이도(北海道)는 여행으로 가보셨겠지만 동일본에서는 기껏해야 도쿄에만 가보셨겠지요? 제가 동북지방에 처음 간 것은 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아는 선생님이 후쿠시마(福島)의 아이즈와카마쓰시(会津若松市)에 살고 계셔서 그곳에서 한 달간 합숙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때 옛 아이즈번(会津藩⁵⁾의 무가저택이 복원되어 있는 박물관에 데려가 주셨는데 박물관을 안내해준 남성의 농담 섞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딸이나 아들만큼은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신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동북지방은 메이지유신 때 오우에쓰(奥羽越)열번동맹⁶⁾을 결성하고 막부지지세력인 좌막파(佐幕派)로서 메이지정부와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쓰다이라 가타모리(松平容保⁷⁾)는 막부 말, 교토수호직을 맡아 신신조⁸⁾를 거느리고 막부반대세력인 토막파(討幕派)를 체포한 아이즈번의 번주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에도막부에 충성을 맹세한 동북지방의 백성들 중에는 사쓰마(薩摩⁹⁾, 조슈(長州¹⁰⁾)를 중심으로 한 메이지정부와의 결투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메이지유신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져 세계를 놀라게 한 ‘삿초(薩長사관¹¹⁾)만 가르칩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로 ‘정사(正史)’에서는 다루지지 않은 역적(逆賊)의 공지에 대해 알고 저의 몽매함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북지방출신이라면 하라 다카시(原敬¹²⁾), 고토 신페이(後藤新平¹³⁾), 니토베 이나조(新

5) 일본 에도 시대 아이즈 군에 존재했던 번. 번은 일본의 역사에서,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를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서는 1만석 이상의 소출을 내는 영토를 보유한 봉건영주인 다이묘가 지배한 영역과 그 지배기구를 가리키는 역사용어로 사용된다.

6) 막부 말기 당시 에도 막부를 지지하고 아이즈번, 쇼나이번을 원조하고자 메이지 유신 정부에 대항한 일본 동북 지방의 번(藩)들의 연합체이다.

7) 에도 시대 말의 다이묘이자 아이즈번의 마지막 번주이며 교토 수호직을 역임했다.

8) 일본 에도 시대 말기인 1863년에 조직된 무사 조직. 원래는 교토로 가는 쇼군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이후 교토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웠다.

9) 옛 지명. 현재의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서부지역

10) 지금의 야마구치현(山口県) 서부지역

11) 사쓰마와 조슈가 연합하여 에도막부를 타도함으로써 봉건시대가 막을 내렸고 메이지 유신이 선포되어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역사사관

12) 1856~1921. 일본 이와테현(岩手県) 출생의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정당정치가

13) 1857~1929 메이지, 다이쇼, 쇼와 초기의 의사, 관료, 정치가.

渡戸稲造¹⁴⁾,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¹⁵⁾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삿초를 중심으로 하는 번벌^{藩閥}¹⁶⁾정치의 시대, 비주류로써 찬밥신세였습니다. 그래도 하라 다카시는 번벌을 타파하여 정당정치를 확립했으며 고토 신페이는 대만, 만주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도쿄의 도시계획을 맡았습니다. 하라 다카시와 고토 신페이는 라이벌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이론적 지주는 요시노 사쿠조입니다. 그와 친분이 깊었던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¹⁷⁾를 영문으로 써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근대사를 돌이켜 보면 동북지방 사람들은 근대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대를 짊어짐으로써 이를 극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고도성장기의 도쿄를 지탱해 준 노동력도 동북지방 출신의 계절노동자와 집단 취직 청년들입니다. 이번 원전사고로 “일본경제, 세계경제의 중심을 지탱해온 후쿠시마에 전면적인 대응을 부탁한다.” 라고 말하는 후쿠시마현 지사의 모습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동북지방은 국가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한 자의 욕망’을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은혜와 원한을 뛰어넘어 국가를 리드하는 뛰어난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유리당해 국가 정책을 믿을 수밖에 없는 동북지방 사람들이야말로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후쿠시마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피해야하겠지만 역사가 뒷받침하는 동북지방 사람들의 소생력^{蘇生力}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1년 4월 18일호)

14) 1892~1933 일본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기독교인, 농업 경제학자, 작가, 교육가, 외교가, 정치가이다.

15) 1878~1933 일본의 정치가, 교육자. '반(反) 제국주의'자로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에 강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식민지 한국을 비롯해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혁명운동에 적극지지를 표하기도 하였다.

16) 메이지유신에 참가한 지방무사출신의 정치파벌

17) 1899년에 발표. 충, 의, 용, 인, 예, 성을 근간으로 하며, 할복 의식을 전례로 야마토 다마시(大和魂)가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임을 강조, 일본의 추진력은 무사도이며 그것은 명예와 용기, 소중한 무덕의 유산이므로 불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여, 유교적 무사도로서 메이지 시대와 일본제국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계획정전으로 생각나는 역사의 아이러니

헤겔은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것이 한번은 위대한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참담한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번은 진화로 또 한 번은 역행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획정전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전기를 물 쓰듯, 아니 그 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흥, 그리고 고도성장과 함께 자라온 환갑의 남성에게 거리에서 네온사인이 줄어가고 변화가의 활기가 사라지는 모습은 ‘나도 이제 다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 조금 쓸쓸해집니다.

이번 원전사고가 길어지면 전력공급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초봄인 지금도 이렇게 패닉상태인데 여름이 되면 ‘전력 국유화’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본의 전력공급 중 30%가 원자력발전입니다.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이 30%를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생활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을 부채질할 생각은 없지만 전력제한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필수품의 배급제 시행도 최악의 경우에는 각오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냉전 후, ‘모든 것은 시장에 물어보라’는 사고방식이 일상생활을 지배했습니다. 무엇이든 민영화가 좋고 외자로 전부 충당되어도 수익자가 만족하면 상관없다는 ‘낙관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손해를 입는 긴급한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미증유의 원전사고에서도 민간기업인 도쿄전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자위대, 소방, 경찰, 지자체가 될 새 없이 사태수습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 다투어 일본을 떠나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라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40년대의 전시통제경제¹⁸⁾의 서막은 ‘전력의 국유화’였습니다. 세계공황의 경험으로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나라가 기운다는 것을 우려한 혁

18)전쟁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경제정책.

신관료들은 국민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중 전력에 손을 댔습니다. 당시는 군부를 중심으로 ‘거국일치’가 주창되었고 정당정치는 약체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대변혁이 큰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스미가세키(霞が関개혁¹⁹⁾)을 주장하는 ‘헤이세이(平成)의 혁신관료’²⁰⁾들은 민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정계에 진출하고 민주당정권에서 정치를 주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해로 민영화도 정치주도도 재검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좌표축을 잃는다면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관료가 되고, 또 다른 혁신관료가 전력 할당을 정해 일종의 통제경제를 지도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화일까요? 역행일까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4월 25일)

19) 가스미가세키는 도쿄 제일의 관청지구로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2009년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종식시키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집권 첫 역점사업으로 관료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 같은 작업은 도쿄의 정치·행정 중심지인 가스미가세키의 이름을 따 ‘가스미가세키 개혁’이라 불렀다.

20) 혁신관료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을 혁신시켜온 관료 행정가들을 주로 칭하는데 여기서는 1989년 1월 8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현재 일본 연호 헤이세이를 따서 가스미가세키 개혁을 하는 관료들을 말함.

‘일본은 하나’에 대한 위화감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온 후 모 매체에 기고하기 위해 집에서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는데 딸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노하다’를 ‘상처입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피난 온 주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표현이 공감을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일본어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과 말의 뉘앙스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일상에서 ‘상식’을 발견합니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확함’, ‘사실성’을 가능한 좁혀가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존재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것. 그 중 하나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있지만 이전에는 없는 것’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쟁에 진 일본이 국가 재건 중에 얻은 것은 개 개인의 상식에 맡기는 다양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슬로건이 제창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나’, ‘하나가 되자 일본’, ‘일본의 힘을 믿는다.’ 등의…….

이와 다른 각도로 ‘각자의 페이스대로’나 ‘각자의 생각대로’라고 외치면 자속하지 않는다고 빈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건을 2차 세계대전 이후와 연관시켜 생각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들리는 구호는 그 이전, 전시戰時와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억조일심億兆一心’²¹⁾ ‘일시동인一視同仁’²²⁾의 슬로건으로 단결하고 온 나라를 한 가지 색깔로 물들인 암흑시대의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북지방을 종단한 적이 있는 분들은 상상이 되겠지만 광대한 피해지역에는

21) 온 세상 사람이 한마음이 됩

22)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함

산을 넘으면 전혀 다른 기후, 직업, 방언이 있고, 다양한 역사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재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지역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재건이란 지진 피해 전, 일상에서 숨쉬고 있던 다양성의 회복에 의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자숙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쿄처럼 피해가 적은 지역에 있다면 더욱 자숙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상황에 기죽지 말고 본래의 다양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신입생, 신입사원과 술을 마시러 가도 좋습니다. 벚꽃놀이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지요. 무리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족과 가까운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망설여진다면 이전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자신있게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다양한 황금연휴가 경제를 순환시켜 피해지역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5월 2 · 9일호)

‘탈脫도쿄’가 끝나고 있다.

드디어 지진피해의 영향이 저의 직장까지 미쳤습니다. 국제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뒤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올 수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신히 교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외국에서 온 연구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돌아온 유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원전사고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때의 일본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니 일본에 있는 것이 무서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해외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문은 사상과 신조 면에서는 경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사라지면 대학은 경영면에서 힘들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연구수준과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탈’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본기업 중에도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간사이지방과 규슈지방으로 거점을 옮기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대학도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의 한사람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차분하게 재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동일본의 대학들이 서일본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점을 교환하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피난시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류학교를 해외로 확대해 나가 대학이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없고, 일정의 연구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쿄가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시장의 중심이던 시대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금융, 물류, 정보의 경우 아시아의 중심은 홍콩, 싱가포르, 또는 상하이로 옮겨졌고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도 이러한 거점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도쿄의 왕좌를 탈환했다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어권의 초국가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얼마 전에는 미국의 예일대가 2013년 싱가포르에 엘리트양성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는 뒤쳐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탈도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현실은 일본인의 위기의식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 단계에서는 보호적인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고 언론들도 국내뉴스만 보도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억명 인구 전체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에 손을 내밀어 공존과 공영의 길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학이 그 선구자가 될 수 없을까 저 나름대로 꼼꼼이 생각해 봅니다.

(2011년 5월 30일호)

어둠 속에서야말로 인간의 본모습이 보인다.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둠에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절전으로 인해 곳곳에서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눈부신 형광등 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도쿄에서도 비교적 쾌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은 이케부쿠로池袋입니다. গত 도쿄에 올라왔을 때 이케부쿠로역 북쪽 출구 주변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만의 독특한 어둠 속에서 본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 서로 스쳐갑니다. 이 분위기가 어릴 적부터 친숙한 구마모토역 주변과 비슷해서 도쿄에 있으면서도 고향땅을 밟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일찍이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²³⁾가 ‘고향 말 그리워/정거장 봄비는 사람들 속으로/고향 말 들으러 가네.’ 라고 읊었던 것처럼 저는 대도시의 어둠에서 고향의 향기를 찾게 됩니다.

들리는 바로는 패션잡지 촬영시에 모델의 주름을 감추기 위해 짙은 메이크업을 하고 강한 조명을 비춘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명의 이기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연의 빛에서는 본모습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의식이 불을 끄고 이뤄지는 것처럼, 또는 길모퉁이의 술집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처럼 어둠은 등신대의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소중한 사람과 마주하기 위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2003년 8월 뉴욕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북미 동쪽해안 일대에 갑자기 대정전이 일어나 대도시에는 테러와 약탈에 대한 우려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암흑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염려하는 예상치 못한 이웃애가 생겼습니다. 촛불을 켜고 얘기하는 동안 사랑에 빠진 커플도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후 일본에서는 결혼상담소를 찾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밤에도 불을 흰히 밝힌 사무실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환경에 그다지 불만이 없던 사람이더라도, 역시 현대사회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최근의 결혼 붐에서

23) 1886.2~1912.4 일본 메이지 시대의 시인이자 평론가

흔한 조건 따지기 같은 메마른 연애가 아니라 진실성 있는 만남을 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6월은 '준 브라이드'의 계절입니다. 결혼식을 자숙하는 커플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사랑을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평소에 자주 다투는 커플들도 싸움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비상사태를 이겨내는 사이가 평생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도야말로 비로소 인간의 본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6일호)

II. 이것이, 나의 원점이다.

야구를 품에 안고

2007년 봄, 이주인 시즈카(伊集院静²⁴)씨의 나오키상(直木賞²⁵) 수상작인 『우케즈키(受け月)』가 고단샤(講談社)에서 문고판으로 나왔을 때 책 후기를 맡았습니다. 야구를 소재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단편집인데 이 책에서 어떤 ‘인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야구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마모토시 소년야구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야구는 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니는 제가 야구를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성적표에서 모두 ‘5’를 받고 기뻐서 어머니께 보여 드렸는데 ‘1’이 제일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아쉬운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데쓰오한테는 야구밖에 없구나. 장훈²⁶선수처럼 되면 계약금도 많이 받겠지?”

데쓰오는 당시 제 이름입니다. 이런 어른들의 말과 친구들의 시선에 힘입어 저도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진 것은 구마모토시내 소년야구대회에 어머니가 보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유격수를 맡은 저는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 심하게 긴장했고 생각대로 몸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승부사에게는 순발력과 결단력,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도 중압감을 떨쳐내는 ‘담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 담력이 매우 부족했고 어느 날 저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야구를 계속했지만 열세인 경기에서 일타역전의

24) 제일교포 2세 작가. 작사가 (한국명 : 조충래)

25) 아쿠타가와상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아쿠타가와상이 순수문학에 수여되는 반면, 나오키상은 주로 대중 작가의 통속 소설에 수여된다.

26) 제일 한국인 출신의 전 일본 프로 야구 선수이다. 일본에서는 하리모토 이사오(張本勲)라는 일본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중대한 상황이 오면 언제나 타석이 돌아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소심하면서도 자기현시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봄, 야구와 결별하였습니다.

『우케즈키』의 첫 작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따분한 야구는 이제 그만두고 신이 만든 야구를 하자.”

여기서 ‘따분한 야구’란 스타가 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하는 야구이고, 후자는 평생 작은별이라도 야구라는 스포츠와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렸을 적에 제가 몰두했던 야구는 ‘따분한 야구’였습니다. 그 때 조금이라도 ‘신이 만든 야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후의 야구와의 관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겨우 이 나이가 되어 빛나는 스타처럼 주목 받지는 못하지만 작은별 인생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향에 있던 제일교포 1세대들과 친구들은 작은별의 인생을 담담하지만 훌륭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스타인 것 이상으로 작은별의 인생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단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아버지-평범한 삶의 위대함

제 책을 읽은 분들과 제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께 편지를 자주 받는데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TV에서 보면 선생님은 엄지와 검지로 자주 턱을 괴는데 의식하고 취하는 포즈인가요?”

저는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턱을 괴는 것은 무의식중에 취하는 버릇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생전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을 받기 전에 구마모토 고향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턱을 괴고 찍은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손가락 포즈까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반도 동남부, 경상남도의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가게를 책임졌습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구마모토에서 폐품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우직할 만큼 성실했지만 장사가 서툴러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을까, 제 야구글러브가 너무 낡아 새로운 글러브를 갖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던 50엔을 슬쩍했는데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채 교실로 뛰쳐 들어와 저를 심하게 때리셨지만, 그날 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분명 원하는 것을 사 주지 못한 미안함과 자식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인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 과묵하신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고향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의외의 면을 발견한 적이 많은데, 몇 년 전에는 구마모토에 있는 한센병요양원에 계시는 제일교포 1세대 분이

“아버지와의 우정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본인은 이러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 느낀 것은 평범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물결이 일어도 밖으로는 언제나 잔잔한 바다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드문 기질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가난을 타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얼마나 감정기복이 심한지, 이래도 괜찮을까 불안할 따름입니다.

병마가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저를 구마모토의 병원 옥상으로 불러 평소와 같이 중얼거리며 말씀했습니다.

“묘는 구마모토로 해라.”

태어난 고향에 묻히시길 바랄 줄 알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구마모토가 아버지에게 매우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은 구마모토 시내의 높은 평지로 고향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방정토²⁷⁾ 때문인지 비석이 약간 서쪽을 향해 바다 건너 고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27) 불교에서 멀리 서쪽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이상향, 극락세계

구마모토를 멀리 떠나

어떻게 구마모토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머니에게 들은 단편적인 기억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입이 무거우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으셨고, 아버지도 과거에 대해 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마모토에 대해 조사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로 오게 한 중요 인물은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삼촌은 당시 조선 청년으로는 드물게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 헌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헌병이 될 수 있었는지 본인에게는 결국 듣지 못했지만 패전의 기미가 농후한 시기에 인원확보가 어려워 삼촌에게도 그길이 열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삼촌이 1944년 구마모토로 부임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미쓰비시의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도쿄대 공습²⁸⁾때까지 부모님은 스가모巢鴨에서 생활했고 그 후 미쓰비시의 항공기제작소가 있던 나고야名古屋부근으로 소개疎開²⁹⁾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대공습을 겪었습니다.

체념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 가닥 실이 구마모토로 이어졌습니다. 나고야의 분공장分工場이 44년, 구마모토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분공장은 ‘비룡飛龍’이라는 폭격기외에도 독일의 V로켓을 모방한 전투기를 제작하려 했는데 그것이 미군의 표적이 되었고 그곳에서도 부모님은 대공습을 겪었습니다. 그 공습으로 공장의 분산이 결정되어 구마모토역 부근의 언덕 높이의 ‘만니치산万日山’에 지하공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만니치산 기슭에서 태어났는데 지하공장건설에 많은 조선인노동자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산 중턱에 조선인 마을이 생겼고 상하수도도 없었지만 200~300세대가 살았습니다.

28)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 10일 살상을 일삼던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미군이 추축국인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그 주변 일대에 대량의 소이탄을 투하한 사건. 도쿄 대공습에 의한 사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사상자 중에는 다수의 재일교포도 포함되어 있다.

29) 공습에 의한 화재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물 철거·주민 이동 등

도쿄에서 시작해서 나고야, 구마모토까지. 계속된 공습으로 마지막에 남은 곳이 만니치산이었습니다. 헌병인 삼촌도 이곳에 숨어있었습니다.

최근 만난 재일교포 분들로부터 “삼촌은 무서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포 출신으로 원망과 한탄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촌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삼촌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희 집은 구마모토에 남게 되었는데 지하공장 주변에 생긴 조선인 마을은 양돈을 하고 밀주를 만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살아 왔습니다.

최근 방문해 보니 거기에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어 만니치산을 깎아 없앤다고 합니다. 재일교포들의 살아온 흔적, 저에게는 제가 태어난 모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매우 쓸쓸해졌습니다.

구마모토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³⁰)의 전통과 미나마타병³¹의 신일본질소비료³²가 조선에 세운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한센병력자 중에도 재일교포가 많아, 격리정책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고향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업보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6촌으로 가등청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구마모토의 초대 번주이자 임진왜란때 조선을 침략한 장수 중 하나. 일본의 3대 성(城)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을 1607년 축조하였다. 구마모토 성을 중심으로 마을을 정비하고 치산, 치수, 산업 등을 장려하여 현재의 구마모토 시의 기초가 되었다.

31) 미나마타병은 일본의 화학기업 킷소(옛 신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가 1932년부터 미나마타 해안에 메틸수은이 섞인 폐수를 흘려보낸 것이 원인이 돼 생긴 공해병으로, 언어장애, 경련,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

32) 1908년 미나마타에 주식회사 발족. 1927년에도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흥남공업단지(북한)에 전력, 화학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식민지 조선에 진출해 급성장하였다.

동경하던 소녀의 옛 모습

어느 TV방송국으로부터 저의 구마모토 시절을 방송으로 엮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수락하였는데 그때 뇌리를 스친 것이 초등학교 시절의 동경하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는데 K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위대간부인 아버지의 전근으로 일본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그 소녀의 첫 인상은 자연스러운 표준어. 표정도 복장도 세련된, 그전에는 본 적 없던 스타일의 눈부신 히로인의 등장이었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저는 K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식한 나머지 마음과는 정반대로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아이도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듯 “데쓰오네 집에 놀러가고 싶어. 집이 어디야?”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저는 과도하게 반응해 기분 나쁠만한 말을 내뱉으며 호의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윽고 6학년이 되어 반이 바뀌었고 가끔 그 아이가 말을 걸어왔지만 저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다시 전학을 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즐거웠던 소년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이번에 방송국 스텝이 저와 관계있는 사람들을 취재한다고 하자 제일 먼저 K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마쳐도 좀처럼 취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과를 알려달라고 재촉하자 스텝이 종잇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신문지였습니다. 읽어보니 미야자키현宮崎縣 어느 마을에서 19살 전문대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켰고 뒷좌석에 있던 여학생이 머리를 세계 부딪쳐 다음날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참동안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여학생의 이름이 K와 같았습니다. 놀라서 신문 날짜를 확인해보니 1971년이었습니다. 사실 K는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신문조각을 손에 든 채 그저 멍하니 있

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종류의 잔혹함이 따라다닙니다. 갑자기 끝나버린 인생이 있고, 그 죽음에 남겨진 이들은 의미부여조차 못하고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쩔 도리 없는 일에 인간은 어떻게 마주해야 좋을까? 저는 지금 다시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K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쾌활함과 명랑함만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던 천진난만했던 날들을 선명하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에 새롭게 더해진 절단면 같은 ‘그 이후’의 슬픈 사실에 저는 아직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역도산(力道山)과 오야마 마사타쓰(大山倍達)의 미소

아사히신문의 석간연재 『일본 인맥기』 중에 역도산(力道山)의 생애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역도산의 제자였던 안토니오 이노키는 역도산은 엄격했지만 웃는 얼굴에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역도산의 미소에 매료된 한 사람입니다.

60년 안보의 해였습니다. 구마모토시의 스이젠지(水前寺)체육관에 역도산이 지방 순회를 왔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카리스마 격투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한센병원(한센병환자 요양원)의 환자들도 역도산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벤허」에서 한센병환자가 하느님의 기적으로 완치되었던 것처럼 역도산의 신통력에 기적을 바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미 ‘역도산은 제일교포다’라는 소문이 퍼져 제일교포들 사이에서 카리스마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끌려 간 저는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가 역도산이 씩씩하게 대기실로 향하는 것을 붙잡아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손으로 악수를 하고 주변을 빛으로 감쌀 듯한 눈부신 미소로 지으며 웃어주었습니다. 틀림없는 백만 불짜리 미소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 잊을 수 없는 카리스마 격투가가 있습니다. 극진가라데(33)의 창시자인 오야마 마사타쓰(大山倍達³⁴)입니다.

대학 시절, 아지트였던 이케부쿠로(池袋)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바깥 보도에서 생각에 잠겨 서 있는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야마 마사타쓰가 아닌가 하고 카페를 나와 다가갔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상중이라고 합니다. 제 친척이 당신의 엄청난 팬이어서 그런데 이 책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자 미소 띤 얼굴로 변했습니다. 역도산처럼 주위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미소였습니다. 제가 내민 책을 건네받고

33) 가라테와 같지만 극진가라테는 주먹기술이 많고 가라테는 발과 주먹을 사용하는 무술.

34) 최영의(최배달) 1922.6~1994.4 전라북도 김제 출신. 실전 가라테로 불리는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로서 국제가라테연맹총재를 역임하였다. 일본의 가라테 10대 문파와 세계 무술인과의 격투기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전일본 가라테선수권대회를 제패하였다.

“그 친척 이름이 뭐예요?”

재일교포 친척의 이름을 말하자 바로 한자로 쓰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역시 재일교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에요? 열심히 해요.”

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큰 손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야구글러브 만큼 컸습니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과 따뜻한 미소에 저는 역도산을 떠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국땅에서 존경받고 추앙받으며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역도산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북쪽을 향해 형의 이름을 포효했다는 설도 있는데 확실히 그들에게 ‘조국’은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카리스마 격투가는 육체를 극한까지 단련함으로써 모국을 대신할 분명한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했던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때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나의 ‘스탠드 바이 미’

여름이 되면 처음으로 도쿄를 직접 본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청춘영화 「스탠드 바이 미」³⁵⁾의 세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쿄 구경을 가고 싶었던 구마모토 악동 3명은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덜컥덜컥거리는 열차를 타 20시간을 걸려 도쿄로 갔습니다.

때는 도쿄 올림픽 이듬해로 ‘이자나기경기’³⁶⁾가 시작된 1965년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의 열차에서 철길 옆 마을 여기저기에 솟아 있는 TV안테나가 보였습니다.

야에스八重洲에 내려 도쿄역 앞의 밀집된 빌딩들을 눈앞에서 본 우리들은
“도쿄 엄청 크다.”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마 료타로司馬遼太郎³⁷⁾씨가 한 말 중에 도쿄는 거대한 배전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 부근 일대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해 손을 내밀면 감전되는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한 달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신문판매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쿄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케부쿠로의 거대한 백화점. 사람들로 혼잡한 신주쿠新宿의 신비스러움.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도시마엔豊島園³⁸⁾. 친구들은,

“데쓰오, 도쿄 여자들 진짜 예쁘다.”

라며 도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쿄에 갈 생각을 한 것은 대학진학 때였습니다. 저는 야구밖에 모르던 소년으로 초등학교 시절, 구마모토 현립 세이세이코濟々巒고등학교가 봄 코

35) 1986년작.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4명의 소년들이 실종된 사람의 시체를 찾으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1박2일 여행을 떠나며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성장영화

36)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최장기 호황으로 1965년 11월~1970년 7월의 5년 8개월의 기간에 있었던 초호황을 말한다.

37) 1960년 《울빼미의 성》으로 나오키상 수상, 1966년 장편소설 《료마(龍馬)는 간다》로 기쿠치칸상을 수상한 일본의 소설가이다. 일본식 역사소설의 황금기를 열어 국민작가가 되었고, 일본 역사소설을 완성시킨 소설가.

38) 도쿄에 있는 유원지

시엔(甲子園³⁹)에서 우승했을 때, 당시 에이스에 대한 동경으로 그가 진학한 와세다에 진학했습니다.

60, 70년대의 도쿄 거리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주쿠에는 학원분쟁⁴⁰의 열기가 가득하고 거리에는 포크송에 흥이 난 학생들의 모습과 가라 주로(唐十郎⁴¹)의 언더그라운드 소극장 ‘빨간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면 연극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같은 ‘시골뜨기’들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하고 두근대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도쿄였습니다.

그런데 가라 주로가 “머지않아 신주쿠는 불타는 초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도쿄 도청으로 대표되는 고층빌딩숲이 늘어서고 길거리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과 언더그라운드적인 것들이 살균되어 점점 기호화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힐즈와 신마루노우치빌딩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도쿄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중년남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마지막 열차를 놓치고 사우나에 갔을 때 많은 중년남성이 안주와 맥주를 손에 들고 다 같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지요? 이제 중년남성에게는 사우나밖에 있을 곳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쿄에는 갈 곳 잃은 중년남성들의 노여움이 감도는 것 아닐까요?

39) 일본의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명칭.

40) 1968년, 일본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 사회풍조에 대한 욕구불만, 학원의 민주화, 학원 관리권에 대한 참여 주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41) 배우, 극작가, 연출가. 1963년 조코 게키쵸 라는 혁신적 극단을 설립해 1960년대와 70년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1978년 교코 이즈미 문학상, 1983년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명망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미시마^{三島}사건의 충격

1970년 전후는 제 개인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⁴²⁾의 자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익의 여운이 남아있던 시절에 드라마틱하고 끔찍한 형태로 할복자살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할복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다니. 그런 미시마 사건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을 그린 영화 「KT」를 보면 특수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미시마 지지자인 자위대원과 특공대에서 살아남아 좌익으로 전향했지만 사회운동에서도 손을 씻은 신문기자가 논쟁을 벌이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위대원이 “지금 일본에 있는 놈들은 모두 돼지다. 일본인의 긍지를 잃고 그저 뻔뻔하게 욕심만 많다.” 라고 비난하자, 기자는 “그게 뭐가 나빠? 난 돼지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맞받아칩니다.

충격적인 미시마의 자살도 이 문맥으로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식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주의를 후생대사^{後生大事}⁴³⁾로 삼고 있는 일본인은 모두 돼지가 되었고 숭고한 국방의 임무를 다해야 할 자위대는 그 돼지를 지키기 위해 있다. 그런데도 자위대의 힘이 약한 것을 평화라고 위장하는 사회에 어떤 위선이나 허구를 깨버린다. 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학 2,3학년이었던 저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학생운동으로 소란스러웠던 장발머리 동급생들이 차례로 머리를 자르고 양복차림으로 바뀌어 갔고 그런 모습을 보며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조반유리^{造反有理}⁴⁴⁾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안전판, 모라토리엄⁴⁵⁾으로 대학을 마칠 무렵에는 기업사회의 입구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

42) 일본의 소설가. 《금각사(金閣寺)》(1956)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의 니힐리즘이나 이상심리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1970년 11월 그가 주재하는 ‘다테[楯:방패]의 회’ 회원 4명을 이끌고 육상자위대 동부 방면 총감부에서 총감을 감금하고 막료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후 자위대의 각성과 궤기를 외치며 할복자살하는 이른바 ‘미시마 사건’으로 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43) 내세에서의 안락을 가장 소중히 여겨 믿는 마음으로 선행을 쌓음을 이르는 말

44)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

다. 간간이 재일운동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지 않은가라고. 깨 버리고 싶은 허구조차 우리들에게는 안전판이 아니다. 그래서 미시마와 영화 『KT』의 자위대원의 참을 수 없는 울분은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김희로(金嬉老 사건⁴⁶⁾, 연합적군(連合赤軍 사건⁴⁷⁾)이 일어났습니다. 좌와 우, 위와 아래로 구분해서 별개로 보이지만 확실히 이 풍요로움은 무언가 이상하다, 이 들떠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완성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자멸적인 이의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불길한 것들은 봉인해 뒤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위대도 미시마도 봉인하고 극좌, 극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재일교포도 봉인하라고. 그로부터 벌써 40년. 돌고 돌아 그 때 봉인했던 것들에 되갚음을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방위청은 성숙으로 승격되고, 봉인 되었던 논조는 이제 일부 미디어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저는 가끔 현기증을 느낄 것 같습니다.

45)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

46) 1968년 야쿠자의 "조센진, 더러운 돼지새끼"라는 말에 격분하여 이들을 살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된 사건을 일으켰다. 이 때 그는 "경찰관의 한국인 차별을 고발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TV를 통해 경찰의 사과를 받아내 파문을 일으켰다.

47) 1971년부터 1972년에 걸쳐 활동한 일본 신좌익 테러조직. 아사마 별장 사건 등을 일으켜 15명을 살해함.

이질자와의 공존

80년대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사이타마현埼玉県 아게오시上尾市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은 Japan as Number One⁴⁸⁾의 거침없던 시기로 저는 매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일기 속의 말을 빌리자면 ‘젠장할 80년대’입니다. 비정규직 강사를 하면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때 ‘지문날인반대⁴⁹⁾’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이타마현에서 거부 제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함도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뒤에서 떠밀려 총알받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아게오시 합동교회의 목사였던 도몬 가즈오土門一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동북지역 출신으로 도쿄신학대학 졸업 후, 각지를 전전하다가 아게오시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옛날 말로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철학 중에는 이질자가 지역에서 얼마나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일관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호자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곳에는 학교 선생님과 시청직원, 카운셀러 같은 분들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반도 등 이론에 치중했던 학창시절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년 후, 지문날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왔습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수감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감되면 가르치고 있던 대학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이런 운동에 왜 당사자가 희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더 이상

48) 하버드대학의 E. F. 보켈 교수의 저서명으로 ‘미국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을 배워라’라는 뜻.

49) 1980년대 재일교포들이 외국인등록증의 지문날인을 거부한 운동

전위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등으로 혼자 고민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자 중에 저를 앞세워 지문날인제도와 나아가 출입국관법까지 반대하고자 하는 운동가 기질의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전하자 낙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도몬 선생님이

“우리 강상중씨의 자유에 맡기시다.”

라고 하였고, 상당히 단호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운동은 국가와 상대할 때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인 겁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망설임이나 고민을 당사자에게 강요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들의 책임인 이상, 강상중씨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 때 무언가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세례를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성경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직도 스승으로써 존경하는 분 중 한명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여 지역으로 뻗어나간다. 젊은 도몬 가르오가 더욱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저씨’와 함께한 날들

2007년 오사카에서 강연을 했을 때, 저의 책 『재일』을 읽었다는 재일 1세에게

“예전에 이와모토씨에게 신세를 졌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모토씨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아저씨’입니다. 한반도에 처자식을 두고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암시장에서 풍족한 생활도 한 듯 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마모토 저희 집에 몸을 의지하게 된 이른바 실향민입니다. 함께 조선인 마을을 나와 폐품 수거를 하는 ‘나가노永野 상점’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체구로 중노동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할까. 곳은일을 도맡아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셨고 어머니도 바쁘신데다가 ‘귀한 자식은 때리면서 키워라’라는 주의였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그 보호막 안에서는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성역이었습니다.

함께 목욕탕에 가서 아저씨가 면도칼로 수염을 깎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리고 외출하는 것을 좋아해 아저씨의 자전거에 올라타 영화관에 자주 갔습니다. 요로즈야 긴노스케 万屋錦之介⁵⁰⁾, 오카와 하시조 大川橋藏⁵¹⁾의 전성기 때 저만큼 도에이 東映 영화⁵²⁾를 많이 본 어린이도 없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외국영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돌아오는 길에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구마모토 대학 식당으로 돼지 먹이를 얻으러 갈 때, 운동장 나무그늘에 앉아 아저씨가 ‘후~’ 하고 내뿜는 담배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50) 쇼와시대를 대표하는 대스타.

51) 가부키배우 및 시대극 배우. 시대극 스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5,60년대 일본영화 황금시대의 주역배우.

52) 일본영화 제작·배급회사.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활약했던 시대극스타인 배우들과 새로운 스타배우들을 영입해 도에이 시대극 붐을 일으켰고 1956년에는 배급수입사 중 1위에 올라 황금시대를 구축했다.

가게에 기계를 들여놓고 유한회사가 되자 아저씨와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게에 들여온 구리선에 대한 절도품 매입 혐의로 아저씨가 경찰서에 가기도 했지만 가게도 점차 안정되어 자리를 잡아 갔습니다. 아저씨의 입지가 좁아졌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이 되어 도쿄로 갈 때 아저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적응해도 좋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화려한 바깥세계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아저씨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가족들이 부축하려고 하자 괜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지만 결국 뇌출혈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처음으로 아저씨의 본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아저씨의 비애와 자존심,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일을 했고 그들은 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잃고 난 지금에서야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마모토도 우회도로와 규슈신칸센 공사로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속에 사람들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마토모에서 시작된 재일교포들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락지성근^{落地成根}

오래간만에 구마모토로 성묘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같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자식에게 성묘는 속죄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재일교포 1세대들은 조상공양이나 죽은 가족들을 기릴 때도 고향땅에 갈 수 없어 가까운 신사나 절을 찾아 고향에서 했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구마모토시 서쪽에 있는 키포산^{金峰山}⁵³⁾에 폭포를 맞으러 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일에는 이틀 동안 자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삼일동안 먹습니다. 대단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과의 유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겠지요.

최근에 일본으로 오는 한국인 중에는 역에서 가까운 건물에 교회를 여는 기독교신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모노세키^{下関}에 있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유골은 정토진종^{淨土眞宗}⁵⁴⁾ 절에 모셨고 묘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스님을 집으로 모셔 독경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재일인은 종교와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모님의 묘는 구마모토 시내의 높은 평지에 있습니다. 이국땅에 자신들의 뼈를 묻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구마모토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문 칼럼에서 작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行}⁵⁵⁾씨가 ‘락지성근’^{落地成根}⁵⁶⁾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원산지인 양미역취⁵⁷⁾가 60년대 후반 일본 전역으로 번식하여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래식물은 국가적으로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모조리 태워버리려는 계획이 나왔을 정도로

53) 야마나시현과 나가사키현의 경계에 있는 해발2,599m의 일본100대 명산중 하나.

54)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호넨^(法然:1153~1212)의 제자인 신란^(親鸞:1173~1262)이 호넨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만든 종파

55) 소설가, 평론가, 작가, 작곡가. 1932년 출생. 태어나자마자 일가와 조선으로 건너왔다가 1947년 일본으로 귀국했다.

56) 식물종자가 땅에 떨어져 겨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잎이 나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

57) 국화과 다년생 식물로 줄기 높이가 1~2.5미터나 되며 종자 번식력이 좋아 토종 식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됨.

미움을 받았습니다.

양미역취는 고향인 북미대륙을 향해 가듯 계속해서 북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식생에 녹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쓰키 히로유키씨는 타향에서 뿌리를 내리는 ‘락지성근’의 심경이라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귀환자다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 부모님도 외국에서 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타국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양미역취처럼 외래종에서 재래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 묘비 앞에는 ‘나가노가 지묘永野家之墓’, 뒤에는 붉은색으로 ‘강’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이라는 성을 쓰는 것은 제 세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십년이 지나도 묘석이 남아 있다면, 누가 봐도 ‘우리들은 외래종이었다.’는 뿌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마모토까지 규슈신칸센이 개통됨에 따라 제가 살던 곳에도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의미 깊은 곳이 바뀌어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묘는 외래종의 흔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묘지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념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위안

최근 몇 년, ‘스피릿츄얼(spiritual 영적) 붐’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지식도 관심도 전혀 없지만 샤머니즘을 접한 기억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무녀인 무당을 지역이나 집에 불러 가족과 주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동북지역의 이타코, 오키나와의 유타와 비슷한데 매년 4월이 되면 저희 집에서도 무당을 불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주모자’인 어머니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최고급 닭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한복으로 몸을 감싼 장신의 무당 ‘시모노세키 아줌마’가 등을 꼳꼳히 펴고 위풍당당하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요란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당이 신들을 향해 무언가를 외칩니다. 어머니도 반광란 상태로 미친듯이 춤을 춥니다. 하지만 3일간에 걸쳐 계속되는 기도는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의식으로 남성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 광경을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친구로부터

“데쓰오의 집은 좀 특이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왜 그런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모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읽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로 기록할 수 없는 이상,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기억하는 습관을 위해서 매사 모든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조금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깨어있을 동안 어지간히 긴장하시는지 한번 잠들면 엮어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셨습니다. 탁월한 기억력은 어머니를 도와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전쟁 중 2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

난 장남, 하루오(春男)형의 일입니다. 제가 철이 들었을 때도 슬픈 기억에 사로잡혀 아이고-, 아이고-라며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할 때, 어머니는 무당의 입을 통해 하루오형의 ‘그 후’를 전해 듣고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탄에 잠긴 사람의 마음은 이성적인 의견과 직설적인 격려보다 ‘마음의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오형의 죽음 외에도 이국땅에서 재일교포 1세로 살아가는 스트레스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상인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겠지요. 이걸 추측입니다만 아마 어머니는 사실 진위와는 관계없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역사회나 교회 같은 곳에서는 개개인의 ‘마음의 간병’이 존재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대체물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웬지 요즘의 스피릿츄얼 붐은 마음의 위안을 원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라는 타이틀의 소설 비슷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남자아이에게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머니입니다. 성인이 되어 여자를 알고 아버지가 되어도 어머니가 ‘여자’라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미칠듯한 애착, 기억의 미화를 넘어 저도 겨우 어머니를 한명의 ‘여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마보이’의 어머니에 대한 오마주라고 오해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써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온 흔적은 활자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쓴 이야기는 제가 모르는, 혹은 기억에서 지워진 공백을 픽션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설 비슷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구와 사실이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고향 구마모토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제사와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 구마모토에서 강연과 취재 의뢰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자주 가게 되면서 느낀 것은 어렸을 때 기억하던 들관 풍경의 변화입니다. 유소년 시절을 보낸 조선인 마을은 규슈신칸센의 개발과 함께 서서히 뒷산이 허물어져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졌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향수가 밀려와 ‘지금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면 그 시절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찰나에 이 책의 출판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책을 위해 구마모토와 한국을 방문해 어머니의 기억의 단편을 찾으면서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본능적인 지혜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이미지가 그려지시겠지만 그러한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시간 이외에 자연의 리듬과 세상사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던 세계에서만 갖춰질 수 있는 직감적인 힘과 신체적인 감각입니다. 학교 생활에만 열중해, 지금 대학에서 그 시간들을 새기고 있는 저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감각입니다. 어떤 때는 가출청소년처럼 멀리했던 어머니의 감각이야말로 매일

매일 느끼는 허무함을 채우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집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 그것은 나이든 여성이 자신의 생애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인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줄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써 내려가는 동안 한 여성의 인생에서 현해탄을 사이에 둔 일본과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도라씨의 접점

아에라의 오기 편집장과 가쓰시카구 葛飾区 시바마타 柴又를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연재칼럼100회 돌과 기념으로 부정기간행물을 출판하기로 하여 표지촬영도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좋아 아주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실은 시바마타라는 촬영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학생시절에 친구들이 많이 살아서 자주 갔던 곳이고 에도가의 강변이 좋아 지금도 그 상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시바마타라고 하면 영화 「남자는 괴로워」 58) 시리즈의 무대이지요. ‘떠돌이 도라’ 구루마 도라지로 車寅次郎가 주인공인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대표하는 명작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진부한 가족예찬영화’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인으로부터 받은 전 작품의 DVD를 집에서 감상하면서 이 영화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라씨는 자유롭게 방랑과 정착을 반복합니다. ‘도라야’ 59) 는 그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로 가끔씩 찾아가 공동체적인 관습이나 가치관을 뒤집고, 놀리고 비튼다. 민족학에서 말하는 ‘방랑자’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시바마타에 모이는 등장인물도 재미있는데 모두 출신이 애매합니다. 도라씨와 사쿠라는 배다른 남매라는 설정인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별, 이혼, 행방불명, 의절 등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도라야에 모입니다. 그리고 위장가족처럼 함께 생활합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족형태, 그 포인트를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져 혈연을 따르지 않는 가족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희극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절묘한 것은 도라지로와 리리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랑생활을 하는 몸이지만 도라씨는 시바마타에 가면 동생 사쿠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댈 곳 없는 리리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제15부의 ‘도라지로 함께 쓴 우산’에서는 메론을 먹지 못해 소란을 벌이는 도라지로에게 리리가

58) 일본의 국민 드라마로 야마다 요지 감독의 대표적인 흥행작.1969년 첫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남자 주인공인 아즈미 기요시가 사망한 1995년까지 만 26년간 총 48편의 기념비적 작품이 완성되면서 기네스협회로부터 '세계 최장수 시리즈물'로 공식 인정을 받은 바 있다.

59) 시리즈에 등장하는 식당.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씌이 나옵니다.

“별 볼일 없는 당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집이 어디에 있어?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난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서로 엮일 것 같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고도성장후의 일본의 한 단면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무렵, 가출청소년처럼 구마모토를 떠나 도쿄의 변화가를 떠돌고 있을 때여서 도라씨가 남 같지 않았습다.

구루마라는 성은 한국에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불같은 성격과 출신을 고민하고 고향을 갈망하는 모습에서 도라지로는 재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바마타에 어떤 인연을 느낍니다.

잊을 수 없는 독일의 성야^{聖夜}

왜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국의 호텔이 만실이 되는 걸까요? 중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들의 크리스마스이브의 심정은 오늘 밤 우리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딸도 조금은 걱정입니다만…….

제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이브의 추억은 1970년대 후반, 유학을 갔던 독일에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당시 저는 유학생생활에 매력을 잘 느끼지 못했고 고독한 유학지에서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암살사건,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광주 민주화운동의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뉘른베르크 교외의 대학가 에를랑겐의 학생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고독하게 보내는 독일의 겨울 추위는 뺏속까지 스며들었고 캄캄한 밤의 정적은 왠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자 평소에는 소박했던 학생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집마다 직접 만든 장식을 달고 조명을 밝혀 거리 전체에 무언가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독일 사람들도 가족, 친구들과 크리스마스이브 만찬을 갖는 이날만은 즐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발길을 재촉합니다.

물론 약속이 없는 저에게는 고독한 성야^{聖夜}였습니다. 어쨌든 저녁을 먹으러 거리로 나가니 식당과 상점은 모두 휴업이었습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와 차갑고 곰팡내 나는 빵을 찾아 쓸쓸히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나중에 평생친구가 된 기숙사 친구 임마누엘 스타브로라키스가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타클로스 같이 선물도 품에 안고. 저는 놀라움과 함께 목이 메어 하마터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기숙사를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였던 그리스 출신의 임마누엘은 제가 크리스마스인데도 분명히 방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날 이런 곳에서 혼자 있다니 믿을 수 없어.”

기숙사에서 끌려나온 저는 결국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정성어린 수제 독일요리와 독일와인의 깊은 맛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콩을 이용한 향토요리,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경단이 들어간 스프, 그리고 많은 고기요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NHK의 어느 프로에서 크리스마스에 독일의 유학지를 방문하여 임마누엘과 재회 했습니다. 대학가의 광장. 전보다 조금 화려하게 장식한 상점. 그리고 전보다 활기차 보이는 독일 사람들. 거의 제가 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소박하고 친밀하지만 엄숙한 독일의 성야. 일본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0년만에 재회한 친구들

고향은 부끄러운 곳이다. 라고 어떤 작가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숨김없이 밝혀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 고향에 대해서는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2007년 말, 아주 오랜만에 모교인 세이세이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향 옛 친구들과 재회하였습니다.

후배 학생들에게 제가 고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마음이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고교시절 저는 ‘모교애’가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진학했고 야구의 꿈도 도중에 중단된데다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낸 고등학교 3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젯빛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모교의 명예’인 것처럼 초대받고, 게다가 후배들에게 그럴싸한 이야기를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17살의 고민 많은 나가노 데쓰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선생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염원하면서도 고독 속에 틀어박혀 있던 40년 전의 나가노 데쓰오. 기억을 더듬으며 희미하게 떠올린 17살의 제 모습은 역시나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마지막에는 꽃다발까지 받아 축스럽긴 했지만 모교란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졸업하고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열 명이 넘는 옛 친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각자 40년의 인생을 가지고 시내의 조그마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적인 존재였던 응원단장은 일류 요리사를 거쳐 지금은 대단한 대주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토론방송을 열심히 보는 듯,

“데쓰오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 그래도 일관되어야해.”

라고 재빨리 술잔을 들이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던 친구는 구마모토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수염을 기르고 흰칠했던 모습은 아쉽게도 사라졌지만

“구마모토는 이제 안돼.”

라며 고향의 쇠퇴를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에는 연륜이 묻어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음악만을 좋아하며 야망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친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를 먹어 작은 카페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자탑을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인 고향에 살면서 나이를 먹고, 마을의 쇠퇴에 약간의 애환을 느끼며 각자 나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모인 것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고향의 따뜻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60세 생일, ‘첫사랑’ 여행을 떠나다

제가 올해(2010년) 환갑을 맞는다는 것은 앞서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조금 호들갑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만큼 60세까지 살아온 것이 저 자신도 놀랍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일이 있었으니까요…….

사자자리인 저는 앞으로 한 달 후 디데이를 맞게 됩니다. 그 날 무엇을 할 것인지 연재 담당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선 혼자 있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때는 ‘꿈의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라며 몇 년 전부터 상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형 2륜 면허 취득이 늦어져 생일까지 못 맞출 듯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 렌터카회사에서 스포츠 카를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출발 지점은 구마모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슬 좋게 잠들어 계신 다즈다산立田山을 내려가서 시내를 지나 아소산阿蘇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미야자키현宮崎県 경계부근에서 차를 한번 세웁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을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내를 집에 두고 떠나는지, 혼자 지내고 싶은지 대충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 소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학 온 그 아이에게 첫눈에 반한 저는 너무 의식한 나머지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준 그 아이는 6학년 어느 날 전학을 가 버렸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 것은 약 2년 전. 생각지 못했던 우연으로 그 아이가 19살 때 미야자키현 경계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간몬해협關門海峽으로 향합니다. 야마구치山口에서 히로시마広島의 구레시呉市, 아이치현愛知縣의 이치노미야시一宮市, 그리고 도쿄의 스가모巢鴨로. 한반도에서 건너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쿄에서 만나 스가모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도쿄대공습이 일어나자 이치노미야로 소개疎開되어 미쓰비시의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곳에서도 부모님은 공습을 만나 도망친 끝에 도착한 구

마모토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제가 태어났고 그곳까지 도달하게 된 루트를 되짚어보며 ‘60년’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쁜 생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하루 24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환갑을 맞는 날 제가 좋아하는 작은 호텔을 빌려 36년 늦은 결혼식을 올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별난 여행으로 바뀌었다는 걸 듣는다면 아내가 화를 낼까요? 덧붙이자면 여행의 종점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바千葉의 저의 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연 현관에서 맞아줄 사람이 있을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2010년에 태어난 당신에게

2010년에 태어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혼자서 글을 읽지 못할테니 어머니, 아버지가 읽어주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마을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보고 있지 않나요? 한국 인천공항에서 겨우 7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 북한의 포격으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남과 북의 대립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당신의 가족만 미묘하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겠지요? 당신의 집안에 감도는 그 독특한 분위기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앗아 가기도 많은 것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육의 해’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은 6.25가 일어난 해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제3국인’이라 불리며, 동족상잔의 내전 특수를 저희 집도 누렸습니다. 부모님은 낮에는 폐철을 주으며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고향 가족들 안부를 걱정하며 우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하시며 서럽게 우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의 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이국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 시대에서 이어져 다음 시대로도 틀림없이 이어질 일입니다.

이국땅에서 차별 받는 것 보다 서로 도와야할 같은 민족이 증오하는 것만큼 굴욕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한반도 분단으로 육친의 녀도 기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과거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분단된 대지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국적이 한국이든 북한이든 혹은 일본이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60년간, 저는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특히 50세가 지난 무렵부터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에세이와 소설을 쓰고, 뉴스 프로그램 해설과 예능프로그램의 사회, 때로는 버라이어티 방송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어로 생각하며 자식은 일본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국경 따위가 다 뭐야?”라고 마음을 바꿨고 은혜와 원한을 넘어 눈앞의 일본과 화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은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와의 화해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앞으로 60년간, 저와 저의 부모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한반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거침없이 38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때를 위해 ‘애마’의 키가 있는 장소를 유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일문초록

この本は朝日新聞社の『AERA』に連載されたコラムの一部を収録したエッセイ集であり、著者は生きる意味とは学問や科学技術が与えるものではなく、ただ愛によって与えられるというトルストイの言葉を前提にこの本を著述している。また、その愛という感情を媒体に現代を生きる人々に重くも軽くもなく、静かに自身の思いを伝えている。

著者は愛を人と人との絆だと定義しているが、個人の問題はもちろん、延いては社会や政治の問題も結局この絆が根本的な問題だとし、本人の経験を基にその絆について話している。第1章「3・11を越えて」では福島原発事故以後の被災地の住民と、次第に消極的になっていく政府の支援に対する懸念、東日本大地震後の社会現象や国家再建に関して語っている。第2章「これが私の原点です。」では在日1世である両親の辛かった日本生活や、初恋の思い出、故郷の熊本への愛情、母国と本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への思いまで様々なテーマを扱っ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本人の思いを語りながらも明確な結論を出すのではなく、読者が考える余地を残している。

この時代を生きる人は誰でも、多少の差はあれ悩みを持っているものだが、その悩みが人生に否定的に作用するのではなく、悩む力こそがこの時代を生き抜く原動力になるという前向きなメッセージを伝えながら締めくくっている。